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참고자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8.5.(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 (02-2100-2830)	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	
	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정 신 동 (02-3145-8170)			김 동 철 팀 장 (02-3145-8172)	
	금감원 외환감독국장 임 채 율 (02-3145-7920)			엄 일 용 팀 장 (02-3145-7928)	

**제 목 :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
(confirmation)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, 보증
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**

☐ 일부 언론에서 日本 언론 기사를 인용하거나 日本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

- 한국 기업 신용장(letter of credit)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면,
-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음

☐ 그러나,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 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함

- ①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*되면서,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**(’98년 62.1% → ’18년 15.2%)하여 전체 수입액중 15%대 수준에 불과

*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,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에 기인

** 무역거래 결제 비중(’98년→’18년, 전체 수입액 기준, 무역협회, %) :
(신용장) 62.1→15.2 (단순송금) 15.3→65.3 (기타) 22.6→19.5

②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,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*에 따라,

-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 (confirmation)을 제공받는 비중**이 매우 낮음

* 주요은행 신용등급 비교(S&P 기준, '19.7월말) :

(산은·수은) AA (기은) AA- (신한KB·하나) A+ ≥ (JBIC) A+ (DBJ) A (미즈호·MUFG) A-

**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'18년중 약 0.3%, '19.상반기중 약 0.1%에 그침(신용장 개설 기준)

⇒ 따라서,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봄

□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,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①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②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③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(☞관련통계 : 참고)에 따라,

○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,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임

* 8.3일 금융위원장 주재 ‘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’ 시에도, 시중은행장 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,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,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,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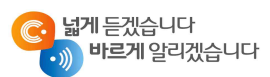
* 매주 ‘금융부문 비상대응 TF(금융위 사무처장 주재)’를 개최하면서 금융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

□ 아울러,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함에 있어,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① 증권시장 및 대출 등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음

- (주식·채권) '19.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.3% (13조원), 1.3%(1.6조원)에 불과
- (대출) '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日비중은 6.5% (118억불, 약 13.6조원)

② 일본 금융기관이 對한국 익스포저를 축소하더라도, 우리 금융기관이 대체조달을 통해 충격완화 가능

- 국내은행은 일본 은행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매우 원활

* 韓 산은/기은 : AA/AA- vs. 日 DBJ/JBIC : A/A+ (S&P 기준)

-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도 양호함

- ❶ '19.6말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92.6억불(약 10.6조원)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.6% 수준에 불과
- ❷ '19.6월중 외화LCR(=고유동성외화자산/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)은 111.2%(잠정)로 규제비율(80%)을 크게 상회
- ❸ 외화여유자금은 292억불로 3개월내 만기도래 외화차입금 (255억불)을 37억불(약 4.3조원) 상회

③ 국가차원의 외환건전성(=외환보유고)도 매우 양호

-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'19.5월 4,020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 ('08.9월 금융위기 당시 2,397억달러 대비 +1,623억달러 증가)